

3. 삶을 계획하기

2022년 한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약속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1월 23일

★우리가정의 약속 _____

★1. _____

★2. _____

★3.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거짓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6]

무지개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93장
- 성경읽기 : 창 9:8-17 (구약 10면)
- 말씀나눔 : 무지개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본문은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창 8:21) 축복하시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으로, 언약 당사자의 대표인 머리(아담, 아브라함, 모세 등)를 통하여 전 인류가 속하게 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셔도 피조물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에 따라 언약을 맺으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십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어(렘 31:33; 히 8:10)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은 사람(노아와 그 가족, 후손)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됩니다(9-10절). 이는 사람에서부터 땅까지 모두 부패하여 심판받았기에(창 6:11-13) 하나님이 땅까지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방주 안을 제외하고 땅 위에 있는 생명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창 7:23). 물이 드러난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숨이 붙어 있는 생명체를 멸하는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새 창조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창 1:28)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후(창 9:1), 다시는 홍수로 생물과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1절).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13절).

이 증거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15-16절).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자 백성을 위한 언약을 친히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무엇을 하십니까? (9-10절)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9, 11, 12, 13, 14, 15, 16, 17절, 무려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약속은 쌍방이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악을 선으로, 공포를 인자함으로, 좌절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결국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은 언약을 어기는 거짓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떠올렸듯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복시킬 십자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2. 말씀 적용

1)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나, 누군가 약속을 어겨서 난감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십자가의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